

건설업계, 디자인 경영에 승부를 걸다

## 아파트 디자인 경쟁의 물결을 타라

‘라이프스타일은 21세기, 집은 80년대식’이라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기가 무척 힘들 것이다. 아파트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과 휴식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주부와 대학생, 건축·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참여를 유도하는 최근 건설업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에디터 | 김소진 · 자료 제공 | 대림산업, 동부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명가연' 멤버들이 회의하는 모습



새롭게 디자인된 삼성물산의 주방

**똑** 같은 외관에 구조가 비슷비슷한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예전에는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성냥갑’에 비유될 정도로 실내 평면 구조가 비슷하고 획일적이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와인을 즐기는 가족 휴바로 이용할 수 있고 노트북 수납 공간이 마련된 주방이나 스파·정원·취미실·서재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코니 등 아파트가 아주 다채로워지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확산, 여가 시간·외식의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이 다변화하면서 아파트 실내 디자인도 꾸준히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사들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디자인팀을 신설 강화하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디자인 경영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물산이 ‘2006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시상식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해 달라진 건설업계 환경을 대변했다.

### 유명 건축·인테리어 디자이너 기용으로 홍보 효과 누리

과거 건설업계들은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를 선보이기 위해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를 기용했다. SK건설은 스프레이로 건물 외벽에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지성진 씨와 손잡았고, GS건설은 조경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자이 디자인위원회’를 결성해 변신을 시도했다. 대한주택공사는 판교신도시의 빌라(연립주택) 3개 블록에 대한 국제 설계 공모를 실시해 미국, 일본, 핀란드의 건축가에게 맡기기도 했다.

그리고 진흥기업은 1999년 ‘그림 읽어주는 여자’라는 베스트셀러를 낸 매스미디어 아티스트 한철편마 씨와 계약을 맺고 단지 내 시설과 출입구, 조경 등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가 하면 삼성물산은 2005년 8월 목동 트라펠리스 분양 당시 세계적인 건축설계 디자이너 프랭크 윌리엄스와 디자이너 앙드레 김을 기용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동부건설 ‘명가연’, 삼성물산 ‘21세기 주택위원회’

#### 주부 모니터 활동 적극적

하지만 최근 건설업계의 방침이 유명 건축가와 디자이너에만 의존해 온 아파트 디자인을 주부와 학생 등 실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디자인팀을 신설하거나 강

“ 최근 건설업계의 방침이 유명 건축가와 디자이너에만 의존해온 아파트 디자인을 주부와 학생 등 실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디자인팀을 신설하거나 강화해 매년 디자인 페어를 실시하고 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천안백석 | PARK 68평형



대림산업은 주부 아이디어로 신발장 아래의 여유공간을 만들었다

화해 매년 디자인 페어를 실시하고 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작년 2월 ‘이름난 좋은 집을 연구하는 모임’이라는 뜻의 명가연(名家研)을 창단해 주부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들 멤버들은 분양 모델하우스 품평과 입주 단지 조사, 타사 단지 와 모델하우스 분석 평가, 차별화된 평면 개발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한다.

삼성물산은 다양한 거주 경험과 다방면의 업무 경험이 있는 전업주부로 구성된 ‘21세기 주택위원회’ 10기 발족식을 가졌다. 1998년 1기가 발족된 ‘21세기 주택위원회’에 선출된 주부들은 모델하우스 품평과 타사의 단지 답사 및 주제 토론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건설 관계자는 “래미안의 갤러리 명소화를 위한 의견이나 신개발 디자인 평가,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래미안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건설업계들은 주부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아파트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 3월 12일부터 4일까지 ‘최고의 씬으로 e-편한세상을 디자인하

기’라는 주제로 제3회 주부 아이디어 공모전을 펼쳤다. 제1회 e-편한 세상 주부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자주 신는 신발을 신발장에 따로 수납하지 않고 신발장 아래에 여유 공간을 두어 현관을 깨끗하게 정돈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 1월 분양한 광명 하안 e-편한세상부터 적용했다.

울트라건설은 ‘Life is Wonderful’이라는 주제로 국내 4년제 이상의 건축 관련 학과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를 하고, GS건설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국내 디자이너와 건축 및 디자인 관련 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1회 자이 디자인 피에스타’란 이름으로 공모전을 열었다. 삼성물산은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우리 집의 행복 이야기를 디자인한다’라는 주제로 실내 인테리어 및 조경, 어린이 놀이터 디자인에 대한 주부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렇듯 주부와 학생 등 실거주자들의 참여가 더욱 늘어나는 가운데 건설업계들의 아파트 디자인 경영은 앞으로도 더욱 진화·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만 화려한 디자인이 아닌 실생활에 편리한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